

불심시심 <7>

시냇물이 경을 외운다

白雲堆裡屋三間 (백운퇴리옥삼간)
 坐臥經行得自閑 (좌와경행득자간)
 湖水冷冷談般若 (호수냉냉담반야)
 清風和月過身寒 (청풍화월과신한)

흰 구름 첩첩한 속 오두막 세칸
 앉고 누고 나다니면 그대로 한가로와
 출랑출랑 시냇물 반야경을 외우고
 달빛에 섞인 맑은 바람 온 몸이 싸늘하다

이 시는 고려의 말미를 휘감 한 왕사였던 혜근(慧勤·호는懶翁 1320-1376)이 지은 '산에서 산다(山圖)'란 시이다. 제목이 그러하듯이 세간 암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경관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선적 고요함을 깊이 드러내고 있다. 조그마한 암자를 중심으로 흰 구름이 싸여 있다. 속세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거처의 표현을 신선이 사는 집으로 연상된다. 세간이라는 좁은 공간이지만 흰 구름으로 해서 속세의 먼 단절을 의미하게 한다. 여기서의 앉고 누움이나 생각 없이 드나드는 발걸음에서 한가로움을 절로 이해하게 되지만 이것이 바로 선수행의 한 과정이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行住坐臥)이 어느 하나 선 아님이 없다면 이것이 한 가하다 한 것이 이 한가함은 바로 선의 고요함이다. 그러기에 주변의 어느 것 하나 진리의 여여한 드러남이 아님이 없다. 흰 구름, 시냇물, 맑은 바람, 밝은 달은 다 각기 서로의 자성이 다르면서 처해 있는 공간 또한 다르지만, 졸졸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반야의 진리의 범음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진여의 실상으로 모여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냇물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든 위 아래 좌우의 모든 자연은 시냇물이 실재의 주인공이 되어 범음을 경청하는 사부대중의 한 무리가 된 셈이다. 따라서 이 시를 지은 선사도 이 대중의 무리와 함께 어울려 자연 진여의 범음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끝 귀에 시조로 손색이 없으면서, 역시 선사의 시각에서 읊어진 시이기에 자연의 진실을 선의 경지로 담은 선취도 짙다 하겠다.

이충헌 (동국대학교수)

만암스님 일대기 영화 나온다

시네아트 「마지막 입는 옷...」 설봉·설산·일봉스님 주연급 출연

만암스님(曼庵 1876~1957)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시네아트(대표·최경옥)가 제작할 이 영화는 윤형광씨의 원작을 영화예술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하봉감독이 직접 각색하고 메가폰을 잡아 제작한다.

제목은 원작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 '마지막 입는 옷'에 주머니가 없네'이다. 분량은 90~120분이며 지난날 8일부터 촬영에 들어갔다. 만암스님의 어린시절에서 입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을 이 영화에는 알려진 배우 보다는 스님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 만암스님의 역은 설봉스님(무애원 주지)이 맡게 된다. 또 극단 「종」의 대표 일봉스님은 백학산 노스님역을, 백현사 설산스님은 감무화상의 역을 각각 맡는다. 현재 수행 중인 스님이 주연급 배우로 캐스팅되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정승 가는 길'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정승...'에 비해 스님이 차지하는 역할비중이 이 영화의 전권을 장식하는 실화 중심의 영화여서 이례적인 일로 주목된다.

주연급 세스님 외에도 강원 의 학생이나 선방의 수좌들도 대거 동참 불교영화의 맛을 살릴 것이라 기대된다.



만암스님 영정

입산·항일행적·선교융합적 수행기풍 답아

만암스님의 역은 아역 청년 성년에서 입적까지를 세 명의 배우가 연이어 맡게 된다. 영화 「마지막 입는 옷...」은 만암스님의 탄생과 입산배경 수도과정 일대기의 항거 이야기 조계종 정화불사의 지도를 격변의 삶을 스님의 행장에 기초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특히 내년이 해방 5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항일 부분에도 역점을 두어 식민지에서의 꽃다운 수행자상을 부각시킨다는 것이 황하봉 감독의 얘기다.

"우연히 불교방송에서 나오는 고승영전을 봤습니다. 만암스님의 일생에 관심을 갖고 보니 영화감독으로서 그분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같은 것을 느꼈지요" 황감독은 막상 마음을 내어 일을 시작하니 상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정말 만들고 싶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료화면을 중점적으로 촬영하면서 각 역을 맡을 배우를 캐스팅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세해부터는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갈 때면 내년 초과 일 무렵에 늦어도 광복절 무렵에는 개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감독은 "모든 배우의 캐스팅 기본 조건은 불자여야 한다"며 스님과 불자들이

행기풍을 보여주려는데 제작의 해를 두고 있다. 이렇듯 뜻밖 한 수행자의 모범적인 삶을 조명해 넣으로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싶다는 것이 제작진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만암스님이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지필묵과 옷가지 그림들을 골고루 나눠주고 흠뻑히 입적하는 장면인데 스님의 유언이 있지만 세해부터는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갈 때면 내년 초과 일 무렵에 늦어도 광복절 무렵에는 개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감독은 "모든 배우의 캐스팅 기본 조건은 불자여야 한다"며 스님과 불자들이

만드는 진정한 불교영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촬영을 백발 노인으로부터 받는 어머니(김부인)의 태풍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입는 옷...」은 정면의 변화를 아나운서맨트 형식으로 이끌고 가급적이면 선·교의 치우치지 않는 수



황하봉 감독

인터뷰

만암역 맡은 설봉스님

"슬러이기 이전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며 바른 승려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암스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만암스님의 일대기를 그리게 될 영화「마지막 입는 옷...」은 주머니가 없네」에 도어가 설봉스님이 영화배우로 데뷔한다. 제작사의 출연제에 거부 의사를 밝히던 설봉스님이 만암스님역을 승락한 것은 영화도 포교이기 때문.

스님은 교도소·교아원·군부대 등지를 돌며 이웃의 불우한 이들을 돌보며 포교사로서 일관된 수행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제 영상을 통한 포교의 길에 나섰다.



스님이 남기고 가신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모든 불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발원했다.

"내면연기를 통해 큰스님의 정신적 고승과 법력을 심도있게 전할까 합니다.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스크린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어우러지는 연기를 할 겁니다."

"법력 심도있게 전하는 연기 할 터"

"불교에서는 상구보리하고 화하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깨우쳐서 부처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의 모습이 되어 화하중생하고 자 할 뿐입니다. 다만 나에게 영화 「마지막 입는 옷...」은 대단한 충격이었고 격려였습니다." 스님은 법을 전할의 일이라 면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생은 연극입니다. 세상 전체가 아무리 넓다하여도 우린 인생을 살다가 스님 만암스님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서, 만암

"선시, 미국시단에 큰 영향 줬"

권의무교수 「스나이더의 시세계...」 분석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권교수의 설명이다.

권교수는 발표를 통해 스나이더는 7년간에 걸쳐 일본 교토의 선원에서 선사의 지도하에 성실한 수업을 받았으며, 좌선과 명상이라는 선의 실재를 통한 동양정신을 시의 모체로 삼았다고 밝혔다.

스나이더는 인생을 시공간을 통하는 긴 방랑여행으로 생각했으며, 시를 탐험가의 여행에 참여하는 진보적인 소리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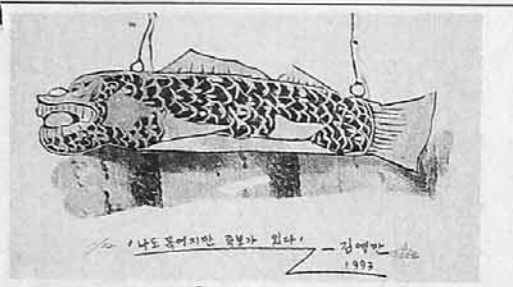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생태계 보호론자이며 시인인 스나이더는 지난 58년 처녀시집(Riprap)을 출판한 이후 끝없는 인구가 처한 환경오염과 생존의 문제를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오기도 했다.

권교수는 "스나이더의 시는 한국이나 중국의 대표적 선시들이 보여주는 기상천외한 강렬한 충격이나 독특함을 충분히 보여 주진 않지만, 선적 이취(隱趣)를 보여주는 다양한 선취시(禪趣詩)와 선리시(禪理詩)를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영문학교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시(禪詩)의 거장인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1930-)의 선시를 분석한 논문 발표에 관심을 모았다.

계명대 권의무교수는 지난달 26일 숭실대서 열린 '한국문화와 종교학' (회장 김영호) 학술논문 발표회에서 '게리 스나이더의 시세계와 선불교'를 발표해 국내에서는 생소한 미국 선시의 동향을 소개했다.

"1897년 스즈키(鈴木大拙:1870-1966)에 의해 미국에 전해진 선불교는 점차 각광을 받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이미 구미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다. 스즈키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현대 미국 시단에는 선시(Zen Poetry)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다양하게 양산되어 강력한 정신적



김영만씨의 「나도 목어지만 죽보가 있다」

화집출판 기념전 김명만씨 광주서

김남희씨 한국화전 불교이상세계 그려

광주에서 활약중인 김영만씨가 특권화 출판기념전을 갖는다.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광주서 동명동 갤러리 아그베(062-228-4210)에서 열리는 김씨의 특권화 전시회에는 「나도 목어지만 죽보가 있다」 등 그의 특권화들이 선보이고 있다. 김씨는 그간 창작해 온 특권화 그림들을 묶어 화집을 펴내고 그 기념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특권화 화풍은 특권화 조실 청화사상은 "작품마다 간결한 성품의 향수가 짙게 스며있다"고 격찬했다. 김씨는 "한국전통 특권화 연구"로 조선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두차례의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광주불교방송과 정로불교 신문사가 후원했다.

불교문화재 50점 보수된다

95년 정암사 수마노탑등... 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

- 내년도 문화재관리국 예산중 국보·보물급문화재 수리보수에 쓰여질 총액은 4백77억5천7백1십9천9백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액수는 50년 문화재의 수리·보존을 위해 사용된다.
- 문화재관리국 내년에 예산을 집행 수리·보존책을 마련할 해당 국보·보물급 문화재 및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충청사 대웅전: 봉향각 해체보수, 3천만원 △회암사지: 부도보수, 3백5십만원 △정암사 수마노탑: 해체보수 1억원 △정암사 부도 및 비: 배수로 설치, 석축보수, 진입로 정비, 2천1백만원 △강화 화경면 석조래인상: 보호각보수, 돌담보수, 7백2십만원 △관악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진입로 정비, 3천만원 △계신리 5층석탑: 토지매입, 진입로 개설, 1천2백7십5만원 △봉선 흥경사 비각: 보호각, 보호책 보수, 1천5백8십3만원 △반산리 5층석탑: 탑보수 및 주변석재 정비, 1천3백만원 △무위사 극락전: 기비: 토지매입, 4천2백만원 △신흥사 대웅전: 대웅전 보수, 4천만원 △대인사 대웅전: 소회사실, 6천만원 △봉선사 대웅전: 요사채보수, 4천만원 △수마노탑: 주변정비, 5천만원
- △통도사 영산전 광상도: 유물전시관 건립, 20억 △춘천 7층석탑: 토지매입, 2억7천만원 △정암사 회전문: 지붕보수와 및 주부 보수, 1천4백만원 △당진 신암사 금동불좌상: 보호각 개축, 3천만원 △금강산 미륵전: 담장설치, 5천만원 △청주 용화사 석불좌상: 기반설치, 미륵전 보수, 1억5천만원 △월출산 마애여래 좌상: 용암 사지 정비, 1억5천만원 등.

살아있는 호신경전-모시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공덕이옵니다!!

秘經 천불 금강경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진불을 모셨습니다.

이땅에 나루신 영원불멸의 비경 이시대 불교인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흥내낼수 없는 역작 비경 천불금강경

영험있는 만다라의 신비함과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들어 있는 비경

천불은 현세·현겁에 차례로 출현하는 구주존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서가모니불·미륵불을 위시하여 최후 루지불까지의 진불을 담으며 진불금강경은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부처님을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인쇄사경하여 만다라의 영험과 신비함을 갖추고 있어 이시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며 가정에 모시면 부처님의 가피원력으로 소원을 이루십니다.

• 봉축특가 W480,000 (현금 일시불, 은행신용카드보통결제)

부처님 품안 우리의 미래

한국불교전통문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포교원

문의처: 732-6096, 735-5293

영험높은 병풍—— 계문대사의 16존자 수행상 탱화

16나한도 10폭 연결 공단 병풍

큰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정법을 수호하도록 위촉받은 16나한님들의 각기 다른 독특한 수행모습을 나타낸 중국 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명화를 공단에금화로 옮겨 10폭 병풍으로 조성하여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나한님의 영험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품설명

- 전면: 16나한 수행도(금화)
- 후면: 500나한본기(금서)
- 작품규격: 높이 5.5尺 폭 15尺
- 표구재질: 앞뒤 금공단金子書·畫 스키원목(수입재)

봉축특가: W420,000

문일가격: W460,000

인수시 W100,000 매월 W120,000×3회